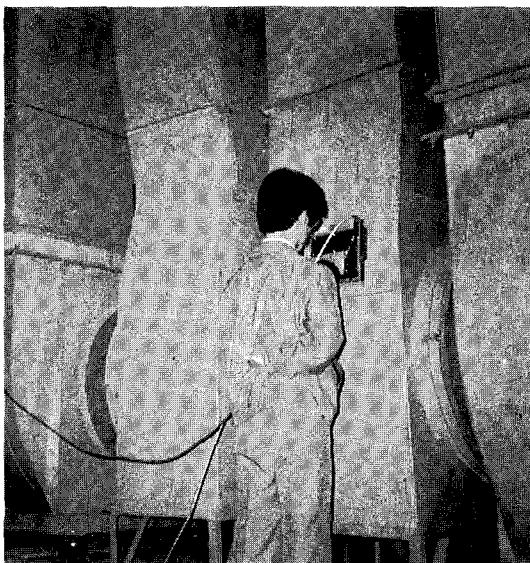


# 최대 냉방 부하를 이용한 효율적인 덕트 설계

김 윤 제 / 한국원자력연구소



## 1. 序 論

냉방부하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데, 첫째, 공간 냉방부하(space cooling load)와 체계적인 장비 및 열원으로 부터 발생하는 부하(overall conditioner load)를 들 수 있다. 공간 냉방부하는 건물 내부 공간으로 전달되는 각기 다른 열부하 요소를 말하며, 건물의 천정이나 벽, 또는 바닥등 외부로 부터 전달되는 전도열과 유리창을 통한 태양 복사열 등이 있으며, 건물 내부로 부터 유발되는 작업이나 조명설비에 의한 열부하를 들 수 있다.

공간장비 및 열원부하는 송풍기 및 덕트를 통하여 생기는 열부하 등을 말하며, 각기 다른

요소로부터 열부하의 합을 구하여, 최대 냉방부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최대 열부하값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덕트를 설계 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등마찰법(equal friction method)을 이용하여 일정한 체적을 갖는 단일 덕트를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덕트 계통의 정체압력손실(stagnation pressure losses)을 구할 수 있는데, 이때 다른 덕트 연결부위로 부터 생기는 유동 팽창과 마찰에 의한 손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종 냉방부하를 계산하는 방법과, 최대 열부하값을 이용한 효율적인 덕트설계의 절차를 논하고자 한다.



(time lag)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냉방부하를 계산할 수 있는 점이다. [참고문헌 1]로 부터, 본고에서 고려한 건물의 지붕 및 각 방위별 벽면의 냉방부하 온도차 계산은 다음식을 이용하였다.

$$CLTD_{corr} = (CLTD + LM) \cdot K + (25.5 - T_i) + (T_{av} - 29.4) \quad \dots \dots \dots \quad (2)$$

## 위 식에서

$CLTD_{corr}$  : 수정냉방부하온도차(북위 36°18', 7월 23일)

$CLTD$  : 기준냉방부하온도차(북위 40°2', 7월 21일)

$LM$  : 위도일월별보정계수(참고문헌 1, Table9)

$K$  : 도장계수( $=1$  : 어두운색,  $=0.5$  : 밝은색)

$T_i$  : 실내설계온도[°C]

$25.5 - T_i$  : 실내수정설계온도[°C]

$T_{av}$  : 평균외기건구온도[°C]

$T_{av} - 29.4$  : 외기수정설계온도[°C]

각 방위별 벽면의 CLTD 값은 참고문헌 1의 Table 6, 7값을 택하였으며, 위도일월별 보정계수는 Table 9를 이용하였다.

또한, 유리창을 통한 일사열 부하 계산서에서 일사열은 반사, 흡수 및 투과되는 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흡수성분은 대류, 복사에 의하여 건물내로 유입, 과도상태를 거쳐 냉방부하를 가져오며, 투과성분은 전량 열부하를 가져온다. 유리창을 통한 열부하계산을 하기 위하여 크게 전도와 복사일사량으로 나누어서, 참고문헌 1의 Table 10과 Table 14 값을 이용하여 CLTD 값을 구하였다.

## [1] 공간부하

### ① 관류열 부하

지붕이나 건물의 외벽, 그리고 유리창을 통한 관류열 부하는 열전달식 (1)과 식(2)의 냉방부하온도차를 이용하여, 다음식으로 표현한다.

$$q = U \cdot A \cdot CLTD_{corr} \quad \dots \dots \dots \quad (3)$$

### ② 틈새바람에 의한 열부하

문이나 틈새등을 통하여 건물내부로 스며들 어오는 오는 부하로서 혼열성과 잠열성으로 구분된다. 실내외 압력차에 의한 외풍의 침입량은 Crack법, 외벽면적법, 그리고 환기회수법등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환기회수법을 이용하여, 틈새바람량 (infiltration rate) [ $m^3/h$ ]을 구하였다.

$$Q_i = n \cdot Vol \quad \dots \dots \dots \quad (4)$$

여기서  $n$ 은 시간당 환기율을 나타내며,  $Vol$  [ $m^3$ ]은 건물내 공간의 체적을 말한다. 또한, 시간당 환기율을 0.7로 가정하여, 다음식으로 열부하를 계산하였다.

$$q_{is} = \rho \cdot C_p \cdot (T_o - T_i) \cdot Q_i \quad \dots \dots \dots \quad (5)$$

$$q_{is} = \rho \cdot \gamma \cdot (\phi_o - \omega_i) - Q_i \quad \dots \dots \dots \quad (6)$$

## 위 식에서

$q_{is}$ ,  $q_{is}$  : 틈새바람에 의한 혼·잠열부하 [ $Kcal/h$ ]

$C_p$  : 공기의 정압비열( $=0.24$ ) [ $Kcal/Kg \cdot ^\circ C$ ]

$\rho$  : 공기의 밀도( $=1.204$ ) [ $Kg/m^3$ ]

$\gamma$  : 물의 증발잠열( $=0.597$ ) [ $Kcal/g$ ]

$T_i$ ,  $T_o$  : 실내 및 외기의 건구온도 [ $^\circ C$ ]

$\omega_i$ ,  $\omega_o$  : 실내 및 외기의 절대습도 [ $g/Kg$ ]

### ③ 실내 냉방부하

단위 면적당 조명에 의한 열부하는 다음식으로 계산한다.

$$q_{lg} = W_{lg} \cdot F_b \cdot CLF \quad \dots \dots \dots \quad (7)$$

여기서

$W_{lg}$  : 단위 면적당 소요전력 [ $W/m^2$ ]

$F_b$  : ballast 계수 (참고문헌2)

를 나타낸다. 조명일로 부터 나오는 복사에너지에 의한 냉방부하계수(CLF)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시된다. 본고에서는, 조명시간을 08:00~18:00까지 10시간을 선택하여 참고문헌 1의 Table 15, 16으로부터 CLF 값을 구하였다. 특히, 조명등으로서 형광등을 사용하게 되면 안정기 저항(ballast)에 의한 열에너지의 소산을 고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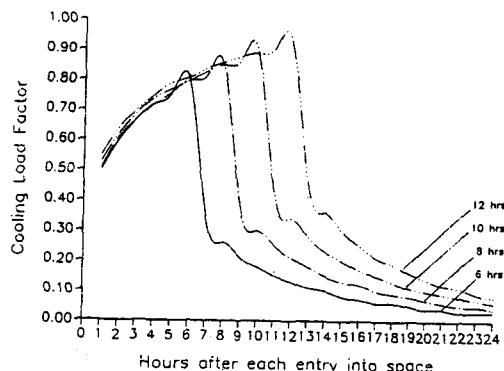


그림 1 Sensible Heat Cooling Load Factors for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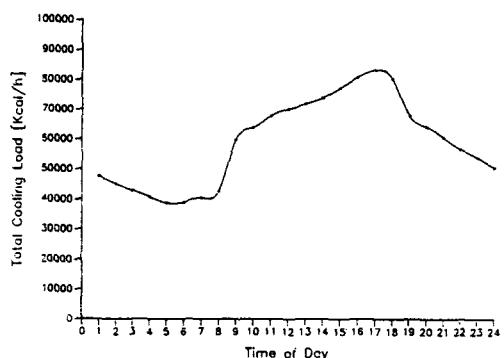


그림 2 History of Total Cooling Load

야 하는데, 참고문헌 2로부터  $F_b = 1.2$ 를 사용하였다.

## (2) 인체열 부하

건물내 작업자로 부터 발생되는 열은 현열과 잠열성으로 냉방부하계산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조명열 부하로 마찬가지로 CLF를 이용하여, 작업자들로부터 나오는 현열의 과도적인 상태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열부하는 작업조건 및 실내온도에 따라 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①현열 부하

$$q_{ps} = (1\text{인당 현열}) \cdot CLF \cdot \text{작업자수} \dots\dots (8)$$

총작업자수를 120명으로 하여, 참고문헌 1의 Table 18로 부터, 남·여 작업자가 발생하는 열을

각각 255W와 217W로 계산하였다. 이러한 값으로부터 각 개인의 평균 현열량은 230W이며, 이중 실내온도 25.5°C에서 현열은 100W이며, 잠열은 130W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실내온도를 26°C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참고문헌 1을 따라 약 4%의 수정치를 취하여, 96W의 현열과 134W의 잠열에 의한 발열량을 구하였다. 냉방부하수는 작업자가 9시간동안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의 참고문헌 1로부터 내삽에 의하여 0.86(17:00 기준)을 택하였으며 8,817.34W(8,520.12 Kcal/h) 현열부하량을 구하였다. [그림 1]은 작업자의 총작업시간에 대한 냉방부하수를 도시하였다.

### ②잠열 부하

잠열부하량은 각 작업자로 부터 얻어지는 평균잠열과 총작업자수의 곱으로 나타내며, 16,080 W(13,828.69 Kcal/h)의 값을 구하였다.

지금까지 건물 내부공간에 미치는 냉방부하를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열부하를 계산하였는데, 최근의 자동화로 인한 여러 설비로 부터 발생하는 발열량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냉방부하는 매시각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요소별 공간 냉방부하를 합하여 하루 중 최대열부하가 일어나는 시각을 계산하여 [그림 2]에 도시하였으며, 최대부하치를 나타내는 17:00시를 설계시각으로 선택하였다. 표 2는 최대냉방부하가 일어나는 시각의 요소별 냉방부하를 요약하였다.

## [2] 장치부하

마지막으로 총냉방부하를 계산하기 위하여 공조시스템의 여러 장치에 의한 열부하를 고려해야 한다. 유입되는 외기는 공조코일을 통과하기 전에 실내로 부터 축출되는 공기와 혼합하게 되는데, 장치부하는 공간과 환기부하의 합으로 나타내며, 공조코일을 빠져나가는 공기의 전체 에너지와 동일하다. 공조코일로 부터 공급되는 외기온도(T)를 16°C라하면, 장치부하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먼저, 공급되는 외기량과 환기량을 구하여, 공간부하값을 이용한 잠열과 외기의 습도비를 알 수 있으며, 재순환 공기와 환기공기가 단열적으로 혼합된다는 가정하에, 공조코일을 통과

## 설비강좌

하는 공기의 여러 조건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 ①체적율

먼저 공급 공기량은 다음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Q_s = L_s / [r \cdot C_{pm} \cdot (T_i - T_e)] \dots \dots \dots \quad (9)$$

여기서,

$Q_s$  : 공급 공기율 [ $m^3/h$ ]

$L_s$  : 공간 혼열부하 [ $Kcal/h$ ]

$\rho$  : 공간밀도( $=1.204$ ) [ $Kg/m^3$ ]

$C_{pm}$  : 습공기 비열( $=0.244$ ) [ $Kcal/Kg \cdot ^\circ C$ ]

를 나타낸다. 또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이 산화탄소를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규정량( $Q_v$ )은 [표 1]로부터  $3,261.6[m^3/h]$ 임을 알 수 있으며, 공급공기량과 환기량 차에 의하여 재순환 공기량( $Q_r$ )을 계산할 수 있다.

### ②공급공기의 습도비( $\omega_s$ )

공급 공기량과 온도, 그리고, 건물내의 잠열부하( $q_p$ )와 실내공기의 습도비로 부터 공급되는 공기의 습도는 다음식을 이용하여 구분할 수 있다.

[표 2] Design Cooling Load Summary

	건구온도 °C	습도온도 °C	습도비
외기	38	24	0.0132
실내공기	26	21	0.0136
현열성	냉방부하(17:00기준) [Kcal/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 및 벽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붕</li> <li>남동벽면(1)</li> <li>남서벽면(2)</li> <li>북서벽면(3)</li> <li>북동벽면(4)</li> </ul> </li> <li>◦ 유리창투과 열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동면</li> <li>북서면</li> </ul> </li> <li>◦ 내부발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명설비</li> <li>작업자</li> </ul> </li> <li>◦ 틈새바람량(infiltration)</li> </ul>		
	소 계		
	69,414.61		
잠열성	냉방부하(17:00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자</li> <li>◦ 틈새바람량</li> </ul>		
	소 계		
	13,829.54		
총공간 냉방부하	83,244.15		
환기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열성</li> <li>◦ 잠열성</li> </ul>		
	필요 냉방용량		
	91,239.52		

$$q_i = 3,000 \cdot Q_i(v_i - v_s) \quad (10)$$

### ③ 공조코일로 유입되는 공기조건

환기공기와 재순환공기의 혼합엔탈피 계산은 다음식을 이용할 수 있다.

$$h = C_{pm} T + 2,502\omega \quad (11)$$

공조코일로 유입하는 공기의 엔탈피( $h_c$ )는 아래와 같은 에너지 평형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Q_v h_r + Q_s h_s = Q_c h_c \quad (12)$$

또한, 공급공기의 엔탈피( $h_c$ )는 식 (11)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 ④ 냉방용량

지금까지 냉방코일로 유입되는 공기의 여러 성질을 구하였으며, 이로부터 에너지 변환에 의한 냉방용량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Q_k = m_i(h_c - h_s) \quad (13)$$

여기서,  $m_i$ 는 공급공기량 [ $\text{kg/h}$ ]을 나타내며, 본고에서 고려한 건물에서는 27.48 [tons] (미터<sup>3</sup>)의 냉방용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3. 덕트 설계

지금까지 총냉방부하를 이용하여 덕트설계에 필요한 공급공기량을 계산하였다. 덕트설계 시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덕트 전구간에 걸쳐 단위길이당 같은 압력이 작용하는 단위압력강하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본고에서 고려한 전체압력강하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팬(fan)에서 각 확산기(diffuser) 출구까지 같은 전체압력강하를 갖게 하는 천정에 여러개의 확산기를 설치하여 필요한 공기를 공급한다는 가정하에, 주공급 덕트는 벽면1(남동방향)의 천정을 시발점으로 하였으며, 도형의 지관연결부(branch riser)를 제외한 전덕트는 직방형 단면적을 갖는 구조를택하였다. 또한, 덕트벽면에서의 공기 누설과 열전달 효과를 무시하였으며, 확산기 선택과, 덕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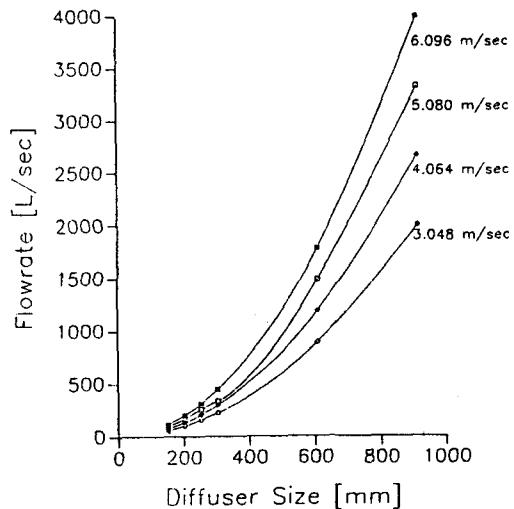


그림 3 Performance of a Typical Round Ceiling Diffuser with Flow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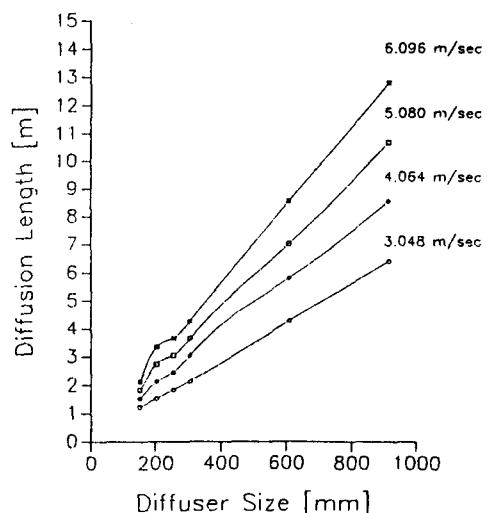


그림 4 Performance of a Typical Round Ceiling Diffuser with Throw Length

크기, 그리고, 압력손실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덕트설계를 하기 위하여 전실내공간을 일정구역으로 나누었다. 설계시 고려해야 할 점은 적은 수의 확산기를 이용하여 충분한 공기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하나의 확산기로 부터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설계면적 종횡비는 1.5~2.0 보다 작은 값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확산기 하나가 14m × 10m의 면적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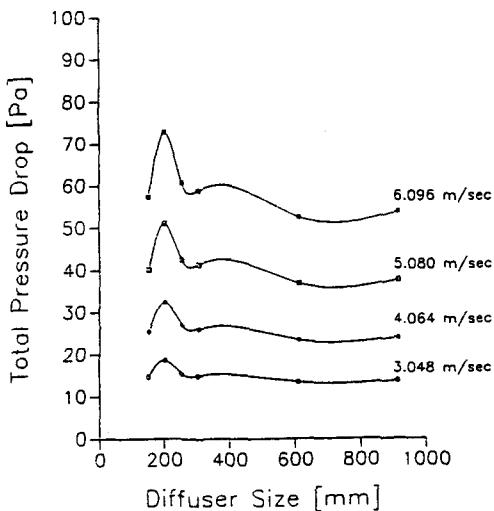


그림 5 Performance of a Typical Round Ceiling Diffuser with Total Pressure Dr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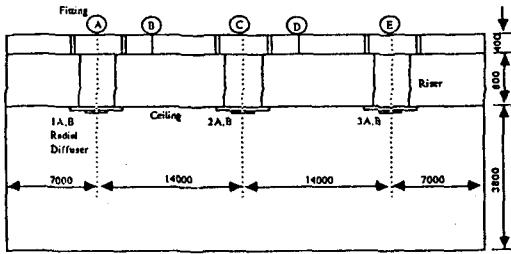


그림 7 Ductwork Elevation(Unit mm)

있다면, 우리가 고려한 공장 건물에서는 6개의 확산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덕트의 형상비(aspect ratio : 폭/높이)는 최대 10을 넘지 말아야 하며, 6이하의 값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형상비가 클 수록 2차유동에 의한 손실량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필요 공기량  $23,628[m^3/h]$ 으로부터, 각 확산기에  $3,938[m^3/h]$  ( $1,094L/sec$ )의 공기량이 공급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3으로부터, 유속  $0.508[m/sec]$ 을 갖고 도달거리(throw length)  $6.90m$ 까지 필요공기를 효과적으로 최대  $1,188[L/sec]$ 를 공급할 수 있는  $508mm$ (20inch)의 확산기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본건물에서 요구되는 도달거리(6m)보다 크기 때문에 필요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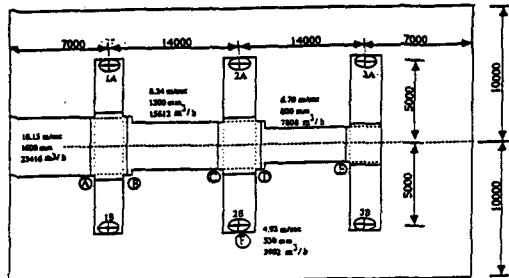


그림 6 Duct Configuration(Not t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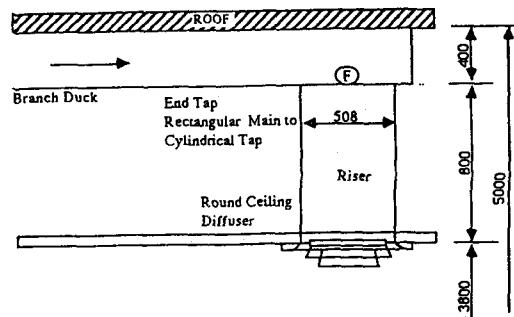


그림 8 End Tap & Diffuser Detail(Unit mm)

량을 전실내공간에 충분히 분배할 수 있다. [그림 3~5]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원형 확산기의 각기 다른 직경에 대한 성능곡선을 유량, 도달거리, 그리고 압력강하에 관하여 나타내었다.

설계요건인 중앙집중식 단일덕트 계통으로부터, 3개의 부덕트관은 6구역의 실내공간에 일정량의 공기를 분배하는데, 모든 부덕트 형상은 일정한 크기와 단면적을 가짐으로서, 또한, 지관 연결부에서는 부덕트 크기에 적합한 이음새를 고려함으로써, 주덕트에서의 일정한 전압손실(total pressure loss)로 인한 압력 평형을 가질 수 있다. [그림 6]은 덕트의 일반적인 배열을 나타내었다.

덕트설계에는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덕트내 유속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 이유는, 고속의 기류는 많은 소음 진동을 유발 하며, 그와 반대로 저속의 흐름은 크기와 경비 면에서 많은 가중을 주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덕트 입구로 부터 각 확산기 까지 일정한 정체 압력강화를 갖도록 고려해야 한다.

부덕트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첫째는 덕트내 적정 유속을 유지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참고문헌 1의 Fig. 9로부터  $6.58[m/sec]$ 을 택하였다. 둘째는, 지관연결부를 적절히 부착시키기 위하여 확산기 직경보다 넓은 폭을 가져야 한다. 적정 형상비를 고려하여 덕트 높이는  $400mm$ 를 선택하였으며, 전 계통에 동일한 높이의 덕트를 사용하였다. [그림7과 8]은 주덕트와 부덕트, 그리고 지관연결부의 형상을 도시하였다. 덕트 입구면의 유속은 참고문헌 1의 Fig. 9로부터 필요 공기량에 상응하는  $10.15[m/sec]$ 을 택하였다. 이로 부터 등가직경(equivalent diameter)을 구한 후 덕트의 크기와 함께 입구면의 덕트폭을 구하였다. 한편, 같은 마찰과 일정 유량에 대한 사각덕트의 원형덕트 등가지름은 다음식으로 표현한다.

$$D_{eq} = 1.30 \sqrt{\frac{(ab)^5}{(a+b)^2}} \\ = 1.30 \frac{(ab)^{0.625}}{(a+b)^{0.250}} \quad \dots \dots \dots \quad (14)$$

여기서,  $a$ 와  $b$ 는 각각 사각 덕트변의 길이를 나타내며 단위는 [ $mm$ ]이다.

각 부덕트에서는 diverging wye 형태의 이음새를 사용하여, 이음새 부위의 압력손실과 마찰손실 값을 구하여 이들의 합을 덕트입구면의 설계손실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손실을 두개의 다른 부덕트에서의 정체압력손실과 동일하다고 놓으면 계통의 압력을 평형을 이루게 된다. 또한, 첫번째 이음새를 지나 덕트의 단면적을 점진적으로 축소시켜야 하는데, 단면적 수축에 의한

압력 강하는 이어지는 부덕트로 부터 계산할 수 있다. Althouse 등(참고문헌 4)은 수축부의 테이퍼링(tapering) 비율을  $0.14\sim0.25$  정도 유지해야 만이 경제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손실량을 적게하기 위하여 수축부는 tailored화 해야 하며, 주덕트를 따라 압력강하값이 평형을 이를때까지 덕트의 수축부위를 조절하여야 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번째, 세번째 부덕트에서 유발되는 압력강하값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정확한 압력손실값을 구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덕트설치시 약간의 편차가 발생하며,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덕트내의 이물질로 인하여 정체압력손실 평형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발생가능한 편차를 고려하기 위하여 설계시 데미페를 설치하여 풍량을 조절하도록 해야한다. [표 3]에 덕트내 마찰손실과 이음새의 손실에 의한 압력 강하값을 요약하였다. 또한, 공급점을 기준하여 총전압손실(overall total pressure loss)과 총정압손실(overall static pressure loss)값을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공기흐름에 대한 덕트내 마찰손실은 마찰선도(참고문헌 1, Fig. A-1)로 부터 공기량, 유속, 그리고, 원형덕트 직경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덕트 인입구에서 발생하는 마찰손실은 공기량  $6500[L/s]$ 와 등가직경  $827[mm]$ 를 이용하여 마찰선도로 부터 단위길이당  $1.05[Pa/m]$ 의 압력손실값을 구할 수 있으며, 총  $\Delta P_{fric} = 7.35[Pa]$  마찰손실이 유발됨을 알 수 있다.

팬(fan)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총정체 압력 손실값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각 확산기 출구까지 동일한 압력강하를 갖게 함으로써 양의 공기를 분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란 모든 확산기 출구까지의 압력손실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Delta P_{sys} = \Delta P_{fric} + \Delta P_{fittings} \quad \dots \dots \dots \quad (15)$$

예를 들어, 주덕트 입구부터 확산기 1A까지 총정체압력손실은 표 3으로 부터  $157.66[Pa]$ 임을 알 수 있다.

## 설비강좌

[표 3] Total Pressure Loss

마찰손실(friction losses)				
덕트구간	유속 [m/sec]	공기량 [L/s]	등가직경 [mm]	압력손실 [Pa]
입구-A	10.15	6500	827	7.35
A-B	6.78	4337	827	0.73
B-C	8.34	4337	757	18.20
C-D	4.17	2169	757	0.73
D-E	6.78	2169	609	12.74
A,C,E-F	4.93	1094	508	3.65
지관연결부	6.58	1094	508	3.65
이음새 손질(fittings losses)				
이음새	이음새 개요	손실계수	압력손실 [Pa]	
A	Rectangular, Diverging Wye 90° Branch (ASHRAE # 6-23)	1.1135	69.06	
A	Rectangular, Diverging Wye Main Branch (ASHRAE # 6-23)	0.0178	1.10	
B	Sudden Contraction(ref. 2)	0.0532	2.23	
C	Rectangular, Diverging Wye 90° Branch (ASHRAE # 6-23)	1.0987	46.00	
C	Rectangular, Diverging Wye Main Branch (ASHRAE # 6-23)	0.0190	0.80	
D	Sudden Contraction(ref. 2)	0.1591	4.40	
E	Rectangular, Diverging Wye (ASHRAE # 6-34)	1.00	27.67	
F	Rectangular to Round End Tap (ref. 2 mitered elbow)	1.30	19.02	
1A, B~3A, B	20°(508mm) Radial Diffuser	-	57.85	

또한, 총정압손실값은 확산기로 부터 분출되는 유속이 지관연결부의 속도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여 Bernoulli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주

덕트 입구와 출구점을 각각 하침자 1, 2로 표시하면, 구간의 압력강하는 다음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Delta P_{\text{stack}} = \frac{p(V_2^2 - V_1^2)}{2} + \Delta P_{\text{fric}}$$

$$= 121.7 [\text{Pa}] \dots\dots\dots\dots\dots\dots (16)$$

#### 4. 결 론

가상의 건물을 설정하여 냉방부하를 계산하는 방법과 절차를 논하였으며, 실내공간에 필요한 냉방용량을 계산하였다. 또한, 등마찰법을 이용하여 일정한 전압강하를 가져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주어진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덕트설계를 하였다. 향후 냉난방 시스템 설계에 전산기술을 응용하여 최적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설계개념과 필요한 자료이용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물론, 공기의 공급과 귀환기능을 하나로 하고 있어 주로 작은공간에 사용되고 있는 단일덕트 장치를 가정하여 덕트 설계를 고려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설계시 복잡한 여러가지 사항을 용이하게 모델링할 수 있었다. 끝으로, 공조계통의 원리와 설계, 작동등에 관하여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하여 본연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ASHRAE, 1985, ASHRAE Hand Book Fundamentals, Chapter 26, 33
- Stoecker, W.F. and Jones, J.W., 1982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McGraw Hill, New York
- HVAC Duct System Design Table and Charts, 1980 ed.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Inc.(SMACNA)
- Althouse, A.D., Turnquist, C.H., & Bracciano, A.F, 1979 Modern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South Holland, Ill., Goodheart-Willcox Co.

〈공기조화·냉동공학 제22권 제4호 전재〉

#### 해외유머

#### 대 책

어느 큰 도시의 레스토랑 주인은 새로 채용한 웨이터를 그의 방으로 불러 들였다.

「자네는 여기에 온지가 1주일도 채 안됐는데 그동안 벌써 1주일분의 급료보다도 더 되는 접시들을 깨버렸어. 장차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

「그런 말입니다. 저의 급료를 올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라고 웨이터는 대답했다.

#### 재 능

로드아일랜드 도안 학교에 입학을 지망하는 사람은 세가지 그림을 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학교는 구두 그림, 저전거 그림, 그리고 지원자 자신이 임의로 선택한 대상물의 그림을 요구한다. 한 번은 원서접수 계원이 구두와 자전거의 그림만이 첨부된 원서를 접수했는데, 거기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자유선택물로는 우표를 그려서 결봉에 사용했습니다.」

우체국이 그 우표에 소인을 했으니 그녀의 예술적 재능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